

# 농진청, 돼지 전염병 발생주의보 발령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기온의 변화가 심한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의 전염성 위장염, 유행성 설사, 유행성 폐렴 그리고 닭 전염성 후두기관염의 발생주의보를 지난 11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돼지의 전염병에 관한 내용을 발췌,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 돼지 전염성위장염(TGE)

돼지 전염성위장염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급성 설사병으로 모든 일령에 발병하지만 특히, 1주령 미만의 젓먹이 새끼돼지에 발생하면 대부분 죽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다. 금년 돼지 전염성위장염의 발생은 경기, 충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도의 일부지역에서 1,940두가 발생하여, 1,285두가 죽었으며, 최근 10월에 충남 논산, 경북 고령군에서 발생된 바 있다.

기온이 떨어지는 11월부터 내년 4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특히 금년 겨울은 이 병의 유행주기에 해당하므로 많은 발생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내 위생관리와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여 설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 〈주요 증상〉

- 모든 일령의 돼지에 발생하며 어린 새끼돼지는 회백색 또는 황록색의 심한 악취가 나는 물같은 설사를 하고 소화되지 않는 젓덩어리가 포함되기도 한다.
- 가끔 구토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어린 새끼돼지는 설사로 인해 심한 탈수증으로 발병된지 4~5일경에 대부분 죽는다.
- 큰돼지는 대체로 설사후 약 7일내에 회복되나 특히 어미돼지는 젓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젓먹는 새끼돼지의 발육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

돼지 유행성 설사병은 연중 발생하지만 비교적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

든 일령에서 발생하나 육성돈 및 비육돈에서 흔히 발병하여 피해를 주는 것이 전염성위장염과 다르고 또한 새끼돼지가 발병하면 죽는 율이 높으며 전파 속도는 전염성위장염 보다는 낮다.

유행성 설사병의 발생은 금년 2~3월에 경기, 충남, 전남, 경북 일부지역에서 1,730두가 발생하여, 1,290두가 죽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전염성위장염과 혼합감염되고 주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함으로 양돈농가에서는 돈사 내외부소독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주요 증상〉

- 물같은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기도 하며 큰 돼지의 경우 설사와 무기력증이 나타난다.
- 죽는 율은 새끼돼지에서는 50~90%로 높으나 큰 돼지의 경우에는 발병후 1주일 정도 지나면 회복하며 죽는 율은 1~3%로 매우 낮다.
- 어미돼지는 젖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젖먹는 새끼돼지의 발육이 떨어진다.

**돼지 유행성 폐렴(SEP)**

돼지 유행성 폐렴은 주로 환절기에 발생되며 증상은 만성적 결과를 취함으로써 양돈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한 소모성 질병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4월부터 9월사이에 360여두가 발생한 바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이천, 경남 김해 그리고 충남 논산에서 지속적인 발생을 보이고 있다. 본 질병은 보균돈의 콧물, 기침 등을 통해서 배설되는 균에 의해서 전파되고 특히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주요 증상〉

- 3주령 이상의 돼지에 주로 발생한다.

- 아침 사료 급여할때 건성 기침 및 재채기 등 특이증상을 나타낸다.

- 2차 복합 감염시 갑자기 죽는 경우도 많다.
- 부검시 폐 병변 부위와 정상 폐부위에 경계가 뚜렷한 암적색의 병변을 나타내고 무기성 폐를 폐첨엽과 심장엽에서 주로 관찰할 수 있다.

**예방대책**

- 돼지 구입시 설사병의 발생이 없었던, 믿을 수 있는 양돈장에서만 구입한다.
- 양돈장 내외를 철저히 소독함은 물론 증개상인 다양한 농가 등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독조치 후 출입토록 한다.
- 발생된 양돈장은 새끼돼지 돈방의 온도를 약 30℃ 정도 올려준과 동시에 치료한다.
- 병이 발생한 양돈장의 경우 분만 예정일에 가까운 임신모돈을 철저히 소독한 후 분만실로 옮기고 난후에도 소독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모든 양돈장에서는 임신돈에 대하여 분만 5~7주전에 1차 예방접종하고 다시 분만 3주전에 2차 예방접종하여 젖먹이 새끼돼지의 피해를 방지한다.
- 예방약은 전염성위장염, 로타바이러스감염증 혼합백신을 접종하여 다른 질병에 의한 설사도 동시에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특히 돼지 유행성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을 보유자돈의 경우 생후 7~10일경 또는 이유직전에 실시하고 2차접종은 1차접종후 2~3주 후에 실시한다.